

‘2022 서울레이스’ 특별한 10,000명을 초대합니다

10월9일 서울광장서 힘찬 스타트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접수
하프코스 10km 등 1만 명 선착순
기능성 티셔츠 양말 등 상품 푸짐

SEOUL RACE

“서울레이스 20주년, 새로운 코스로 서울의 심장을 함께 달리자”

즐거움과 건강을 주는 유쾌한 달리기 ‘2022 서울레이스’가 10월 9일 서울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2022 서울레이스’는 서울특별시와 동아일보사,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며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10km 코스 등 2개 부문에서 1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대상을코리아의 기능성 티셔츠, 러닝 양말과 참가 부문별로 레이스 간식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테디베어 아이스 컨테이너를 추가 기념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울레이스 런크닉(러닝+피크닉) 패키지도 마련됩니다.

새로운 코스로 선보일 20주년 기념 대회는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www.seoul-race.co.kr)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러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8면

- 대회 : 2022 서울레이스(SEOUL Race)
- 일시·장소 : 10월 9일(일) 오전 7시30분 서울광장 출발
- 참가비 : 하프, 10km(이상 5만 원)
- 문의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레이스’ 검색 후 일대일 문의 (e메일 marathon@donga.com)
- 인스타그램 : @seoulrace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최소경기 1000안타 ‘천재’ 이정후의 야망

50경기만에 18안타 추가뎀 아버지 이종범 기록 경신

연도	경기수	안타	타율	비고
2017	144	179	0.324	
2018	109	163	0.355	
2019	140	193	0.336	3루타 1위(10개)
2020	140	181	0.333	2루타 1위(49개)
2021	123	167	0.360	타격 1위
2022	73	99	0.351	
합계	729	982	0.342	통산 타율 1위

※ 통산 타율은 3000타석 이상 기준.

키움 이정후가 개인통산 1000안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버지인 이종범 LG 2군 감독이 보유한 최소 경기 1000안타 기록 경신과 함께다. 스포츠동아DB

올 시즌 99안타...최다안타 선두질주
이승엽 최연소 1000안타도 경신 예약
김종국 감독 “아버지 능가한 슈퍼스타”



어느덧 사정권에 들어왔다.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4)는 장타능력을 뽐내며 올해도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홈런과 장타율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2020시즌(15홈런·0.524)을 현재 페이스라면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정후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장타, 특히 홈런에 대해선 한사코 고개를 가로챘는다. 자신은 홈런 타자가 아니며, 현재 나오는 홈런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타자. 하지만 그런 이정후도 올 시즌을 앞두고는 유독 욕심을 낸 한 가지

기록이 있다. 개인통산 1000안타다.

2017년 데뷔한 이정후는 올 시즌 개인통산 1000안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매 시즌 최소 160개의 안타를 생산한 덕분에 6시즌 만에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이정표를 목전에 두게 됐다. 올 시즌에도 29일까지 최다안타 부문 단독선두(99개)를 달리며 통산 982개의 안타를 적립해 조만간 1000안타 고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정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단순히 숫자만은 아니다. 달성 시점이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 1000안타와 ‘최소경기’ 1000안타 기록을 모두 올 시즌 경신하려고 한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 1000안타 기록은 현재 이승엽(은퇴)이 보유하고 있다. 이승엽은 만 25세 8개월 9일의 나이로 10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올해로 만 24세인 이정후는 1000안타 달성 시 가뿐하게 이승엽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록은 최소

경기 1000안타다. 이 기록은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 LG 트윈스 퓨처스(2군)팀 감독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은 불과 779경기 만에 1000안타를 쌓았다.

2021시즌까지 이정후는 656경기에서 883안타를 때렸다. 아버지의 기록을 깨려면 올 시즌 123경기 안에 117안타를 뽑아야 했는데, 현재 무서운 페이스로 다가서고 있다.

이정후는 29일까지 올 시즌 73경기에서 99안타, 통산 729경기에서 982안타를 날렸다. 1000안타까지는 이제 18개만 남았다. 앞으로 50경기 안에 18안타를 보태면 된다. 경기당 1.36안타인 올 시즌 페이스대로면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 감독의 전 동료인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이정후를 보고 “아버지를 능가한 슈퍼스타”라고 극찬했다. 시대를 넘어 과거의 스타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한 이정후다. 아버지의 대기록을 뛰어넘어 KBO리그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척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금메달 노리는 높이뛰기 강자 우상혁
세계육상선수권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세계적 강자로 부상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2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결국 기록보다 순위싸움이다. 순위싸움을 하기 위해 계속 우승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메달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항상 목이 마르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항상 최초의 타이틀을 원한다. 역사를 쓰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 때 보여드리겠다. 자신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기록(2m36) 보유자인 우상혁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훈련하며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대회장소인 오리건주 유진으로 이동해 16일(한국시간) 예선, 19일 결선을 치른다.

인천국제공항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부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부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